

추리물 활기에 불씨 지핀 개척자

사재 털어 '추리문학관' 건립한 작가 김성종씨

우리나라 최초의 추리문학 전문도서관을 세워 문화부로부터 감사패를 받은 김성종씨(51)는 개관한 지 얼마 안된 문학관의 잔손질로 아직도 바쁜 나날이다. 부산에 정착한 지 올해로 12년째인 김성종씨는 문화거리의 꿈을 키우며 마련한 이 공간이 부산의 문화마당, 나아가 추리문학의 메카로 발돋움하는 첫걸음이 되길 소망했다.

추리문학의 메카로 발돋움하길

“순수문학만이 정통문학으로 대접받는 우리의 풍토에 새로운 자극이 됐으면 합니다. 사실 추리문학에 관한 한 우리나라는 너무 문외한이죠. 추리문학이 어느정도 대중문학으로서 세계에 깊이 뿌리박혀 있는지조차 모릅니다. 대중의 사랑을 받는 것이 살아있는 문학 아니겠습니까. 영국의 애거서 크리스티는 오히려 순수문학의 셰익스피어보다 대접을 받고 있는데, 우리는 문학을 너무 심각한 쪽으로만 생각하려는 경향이 있어요. 그같은 고정관념은 문학의 다양성을 왜소화할 뿐입니다.”

글자로 존재할 수 있는 모든 것이 자유롭게 공존해야 한다는 지론을 강조해왔던 김성종씨는 사재를 털어 추리문학관을 세운 일을 그저 “남들이 하지 않는 일을 해보려고” 시작했을 뿐이라고 겸손해 하면서도 막상 우리나라 추리문학의 위상에 대해선 격앙된 목소리가 높다.

김성종씨는 「최후의 증인」(74)으로 추리소설에 입문한 이후 최근에 TV드라마로 방영, 화제가 됐던 「여명의 눈동자」를 비롯해 써낸 작품마다 베스트셀러를 기록한 국내 최고의

추리작가다. 「비련의 화인」(86)으로 한국추리문학 대상을 수상하기도 했던 김성종씨는 「제5열」 「일곱개의 장미송이」 「피아노살인」 등 지금까지 18년동안 30여 작품 60여권의 추리소설을 발표, 왕성한 작품활동을 계속해왔다. 현재도 일간지, 스포츠지에 「비밀의 연인」 「세상에서 가장 쓸쓸한 사나이」 「슬픈 살인」 등의 추리소설을 연재, 하루 최소한 20매 이상의 원고를 꼬박 써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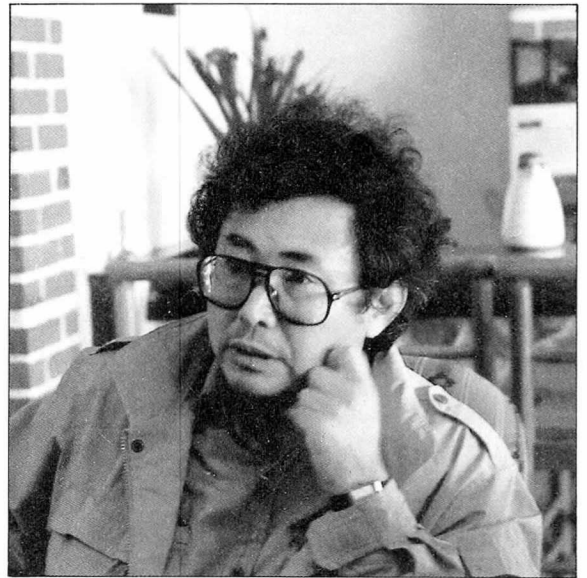
추리문학에 대한 김성종씨의 열정은 수많은 그의 작품들 외에도 「현대추리」(무크, 폐간) 「추리문학」(계간) 등의 전문지를 심한 적자도 아랑곳않고 펴낸다는가 각종 추리문학 신인상에 대한 지원 등에서도 알 수 있듯 각별하다. 이제 그 애정은 다시 '추리문학관'의 결실을 맺게 된 셈이다.

“추리문학은 가장 원초적인 인간의 본능에 뿌리를 둔 문학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보이는 본능은 호기심이죠. 그것은 성인도 마찬가지고, 호기심의 심리를 자극하는 것이 곧 추리의 시작입니다.”

문학성 갖춘 추리소설 필요

자신이 신춘문예를 통해 탄탄한 문학성으로 출발했던 만큼 김성종씨는 추리소설 작가들이 지녀야 할 가장 기본적인 덕목으로 「문학성」을 꼽는다. 작가로서 갖춰야 할 덕목, 가치관이나 의식이 부족한 사람이 무조건 테크닉만으로 추리소설을 쓰겠다고 뛰어드는 건 곤란하다는 지적이다. 더불어 사회전반에 대해 항상 관심의 눈을 열어놓아야 하기 때문에 어떤 작가보다도 부지런해야 한다고.

“순수문학만이 정통문학으로 대접받는 우리의 풍토에 새로운 자극이 됐으면 합니다. 사실 추리문학에 관한 한 우리나라는 너무 문외한이죠. 추리문학이 어느정도 대중문학으로서 세계에 깊이 뿌리박혀 있는지조차 모릅니다.”



김성종씨.

“추리소설의 소재는 거의 무한합니다. 특히 우리나라 현대정치사는 흑막과 비리·암살 등 사건으로 점철돼 있어 추리소설의 광맥이라 할 수 있겠죠. 문제는 소재를 어떻게 소화해내느냐입니다.”

예컨대 김성종의 「최후의 증인」은 6·25의 비극을 배경에 깔고 있는데, 그의 일련의 작품들이 그렇듯 “그늘에 가려져 있는 소외계층의 존재성 혹은 윤리성, 그 불가피한 비극”을 다뤘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외국 추리작가에 대해서는 「추운나라에서 돌아온 스파이」 등을 쓴 스파이소설의 대가 존 르 카레의 집요하고 깊이있는 세계와 철학 이상의 심오함이 담긴 문장, 프레드릭 포사이드의 간결한 문장과 스피디한 전개, 세련된 감각을 좋아하며 일본의 모리무라 세이치는 추리소설에 문학적 향기를

집어넣은 작가로서 높이 평가한다. 영국의 「암 체어」나 「엘러리 퀸」 일본의 「소설추리」·「히치코크 미스터리」 등의 추리 전문지를 통해 최근 동향과 소재에 귀를 열어 놓고 있는 김성종씨는 집필하는 장소는 언제나 바다가 흰하 보이는 곳이거나 작품 속에는 반드시 부산이 들어갈 정도로 이곳에 정이 들었지만, 좀더 나이가 들면 고향인 전라도 구례 땅 지리산 자락에 샴터를 들고 싶을 만큼 산과 숲을 좋아하는 등산광이기도 하다. “사랑하는 사람을 만지듯” 원고 쓰기 전엔 항상 손을 깨끗이 씻는다는 김성종씨는 “사람의 삶 자체가 곧 모두 범죄 가능성을 품고 있지만, 추리소설을 통해 체험할 수 있는 극적인 세계를 순간 공감하는 것이 바로 추리소설이 가진 매력 아니겠나”고 반문한다. — 김지원 기자

그림으로 배우다 생활기공 生活氣功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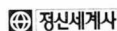
전철 안에서 병을 고쳤다?

남모르게 5년을 앓아온 나의 고질병 치질을 남모르게 전철 안에서 고쳐 버렸다. 걸으면 아무 짓도 안 했으니까 사람들은 내가 그 복세통 속에서 기공을 했는지 공기를 했는지, 대체 뭘 했는지 모를 것이다. 내가 쓴 비법은 제향공법-《생활기공》에 자세히 나와 있다.

최소한의 공간에서 빈손과 맨몸으로 당장 시작할 수 있는 《생활기공》. 동작 하나하나를 일일이 구별한 370여 개의 그림과 친절하고 자세한 설명. 건강과 미용, 질병 치료에 탁월한 효과를 발휘하는 생활기공을 지금처럼 책을 보면서도 할 수 있습니다. 이동현(한국기공연합회 회장) 지음/ 4,500원



정신세계사의 신간
*서점에 있습니다.



전화 733-3135(대) 팩시 739-8791
(책방 정신세계) 전화 741-7033(통신판매도 합니다)

크게 되는 아이의 아버지

당신은 어떤 아버지입니까?

당신은 아이 손을 잡고 폭풍우 속을 거닐어 본 적이 있습니까? 당신은 아이와 단둘이 기차여행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당신은 아이 앞에서 아내를 포옹해 본 적이 있습니까? 참고서를 슬며시 덮어 주면서 시집 한 권을 건네 본 적이 있습니까? 아이에게 자신의 실패담을 진지하게 털어놓은 적은? 훌륭한 요리사나 청소부가 되어도 좋다고 말해 본 적은?

자녀 문제에 관한 한 늘 죄책감을 느끼는 아버지들에게 자신감을 심어주는 책
다쿠마 다케토시 / 김중오 옮김 / 4,000원